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남)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덴타(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르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자릭 푸레브, 양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무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선교 목사/ 협동 목사/ 전 도 사/	페르난도 보르브 문신현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원로 장로/ 장 로/ 이정호 반성건 이동림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승 이덕행 최희승 허은범 정대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관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평신도 교역자/ 기도원 교역자/ 지교회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김영식 문태규 정철수 이행엽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닛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28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33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04장	다 같 이
기 도	최종태 장로
성경봉독 출애굽기 20:8~11	사 회 자
찬 양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3)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8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오인숙 전도사
성경봉독	옴기 8:1~15/ 사회자
찬양	성령이 오셨네/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경애 권사
설교	옴기 강해(17) - 원인과 결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장길남 권사
성경봉독	야고보서 3:17~1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관용의 마음/ 문태규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서진범 목사

대표기도	조수열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6:9~17/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38)/ 당회장님

2-9회 1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5월 30일(월) ~ 6월 19일(주일)
주제/ 성전이전, 만민하게수련회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김진홍 장로
주일 저녁예배	노영진 목사	이영인 전도사
수요 예배	정규원 목사	권영남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정진영 목사	장성식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역사

본 문 : 행 2:1~4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중 세 가지 중요한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강림 주일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활동하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근방에 사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은 본체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영으로 분리되어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어느 지역이나 모든 성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해 주시지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도 하시는 등 바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붙좃았던 베드로조차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붙좃으며 듣고 배운 것들이 자기 안에 온전히 능력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권능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급한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성령의 역사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분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며 장래 일을 알려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기도 하지요. 방언과 환상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이렇게 수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분야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각 사람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지요. 물, 곧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함께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그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도 더럽고 추한 것이구나.’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철저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듯한 아픔 속에 진정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후에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죄가 씻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자신이 구

원반았다는 확신이 주어지지요(고전 12:3). 이처럼 성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처음 영접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 해도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도나 죄를 짓게 마련이므로 죄를 범할 때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지요.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죄를 범한 사람 편에서만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담이 헐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 주셔야 하지요.

만약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같은 죄를 계속 쌓아 나가거나 아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므로 그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끊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때그때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차원에까지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악을 뽑아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요 14:26).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계속 미움을 버리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여 악을 행할 때는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애통하며 탄식하시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답답함과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마음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악을 발견하면 단순히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 곧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거나 마음에서 악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발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감동함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되며, 성령의 불로 태움 받아서 죄성의 뿌리까지 뽑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육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함을 받으면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점점 더 깊은 마음까지도 느끼며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며 깊은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의 눈물이 그칠 수가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여 죄를 버리는 것이나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신자나 심령이 강박한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한다고 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지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러합니다.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선이 가득하며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그저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사랑 자체요 선 자체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안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요.

또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주관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영계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워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중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마음을 할례하여 온전케 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천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16) - 욥의 오해

본 문 : 욥기 7:12~21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오해와 원망, 탄식과 조롱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욥의 오해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욥 7:12-14)

욥은 바다의 웅장함을 알고 있었으며, 용을 위대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
래서 바다나 용처럼 대단하지도 않고 하찮은 자신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상관
하며 괴롭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
운데 자신을 치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잠이나 푹 잘 수 있다면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텐데 잠이 오지 않
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다 잠이 드는가 싶으면 악몽으로 인해 깜짝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도 재워 주시지 않고, 오히려 꿈으
로 놀라게 하시며, 이상으로 두렵게 하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
다. 시험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은 이유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
회자복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짐과 염려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시 55:22, 벰전 5:7)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찾으시면 찾게 해 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질
병이 틈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요한
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성경 곳곳에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욥은 불면증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잠이라도 잠이 들면
꿈마저도 괴롭고 편치 않았습다.

꿈은 영적인 꿈과 혼적인 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꿈은 내 영이 꾸는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영적인 꿈을 꾸니다. 비록 아담의 불순종 이후
영이 혼에 갇혀서 활동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깊은
마음에서 영이 작동하여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 주시거나 성령님께서 알려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시험 환난이 올 것을 알려 주심으로 미리 대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꿈을 통해 답을 주시기도 하지요(민 12:6, 욥 2:28)

다음으로 혼적인 꿈은 내 생각 속에 꾸는 꿈입니다. 평소에 '미국에 가고 싶다.' 생각하면 꿈속에서 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꿈속에서 도둑에게 쫓기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 속의 꿈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꿈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속되는 욕의 원망과 탄식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욥 7:15~16)

욕은 마음 중심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숨 막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상하게 뼈와 가죽만 남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질병에 걸렸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시며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지지 않으니, “제발 빨리 좀 내 생명을 거둬 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지요.

욕은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고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전혀 합당치 않는 말로 엄청난 울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며, 결코 생명을 거둬 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욥 7:17~19)

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크게 여기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

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요.

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시도 놔두지 않고 분초마다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권장’이란 권선징악의 준말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다가,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에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하고 통회자복 하는 행함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옴은 하나님께서 침을 삼킬 만큼의 잠깐 동안도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시느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간섭하시며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옴은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옴이 진리에 어긋난 많은 모습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옴 7:20)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시 11:5, 시 139:3, 잠 16:2, 잠 21:12, 히 4:12). 이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변명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옴은 자신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해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 죄를 지은 그 자녀가 멸망의 길 곧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범죄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헛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뜻대로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 마귀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

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표적물로 삼으셔서 스스로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을 비웃는 말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원망과 조롱의 말까지 들으면서도 짐스러워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허락하신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이 아름다운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참고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성결되어 참된 아들, 딸로 나올 것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인내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 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욥 7:21)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제 그만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욥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지난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적당히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까?”라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까?

욥은 시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번제도 드렸었는데 악창 가운데 고통을 받다 보니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면 그만이니 빨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님들 중에도 정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잠 8:17), 가난한 심령이 될 때라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승해지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아 늘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

읽을 말씀 / 마태복음 7:24-25

외울 말씀 / 마태복음 7:25

참고 말씀 / 요한일서 2:14

교육 내용 / 믿음의 3단계 특징과 이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처소에 대해 알아본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 육체의 일을 버려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이릅니다.

1.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

믿음의 2단계에서는 행함으로 짓는 죄 곧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3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육체의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가령, 애매하게 욕을 먹고 책망을 들어도 묵묵히 참으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려고 애씁니다. 내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섬기려 노력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무감 속에 억지로 지키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하면 축복받고 지킴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가족의 눈치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한다거나,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잠냄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믿음의 3단계라 할 수 없지요. 심고 행한 후 본인의 생각만큼 빨리 축복이 오지 않으면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한두 가지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심에서 믿는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는 마음의 죄성 즉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의 일을 버려 나가게 되지요.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2. 믿음의 3단계 초입과 믿음의 반석

믿음의 3단계에서도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3단계를 1%에서 100%로 나눌 때 100%에 가까울수록 믿음의 4단계에 가깝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마음에 갈등을 겪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은 하지만 마음에 죄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기는 하되 선을 좇으려는 영의 생각과 악을 좇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해 불평불만을 쏟아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3단계에서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3단계 초입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마음을 진리로 다잡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3단계 60% 이상에 이르면 마음에서 죄성이 많이 버려진 상태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만큼 죄성을 버리고 믿음의 4단계에 가까이 온 증거이지요.

이때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혹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쳐도 이내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고전 10:4)를 의미합니다. 시험 환난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3단계 60% 이상이 되면 ‘믿음의 반석’에 들어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면 상대에 대해 순간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해도 즉시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지요.

믿음의 3단계 70~80%가 되면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며,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서 육신의 일을 하나하나 버려나가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밝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지는 못할망정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길에서 돈지갑을 줍는다 해도 '내가 쓸까, 주인을 찾아 줄까?' 갈등하지 않고 바로 주인을 찾아 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고 즉시 선을 좇으며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마침내 영의 믿음, 곧 믿음의 4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 처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간신히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 처소는 '낙원'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에 속한 성도는 낙원보다는 좋은 '1천층'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성도의 천국 처소는 어디일까요? 1천층보다 좋은 '2천층'입니다.

2천층에 들어가면 다세대 주택 형태의 집이 주어지는 1천층과는 달리 독립된 주택을 줍니다. 단층이지만 이 땅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부속 시설 한 가지를 자신의 소유로 받습니다.

만일 아름다운 호수가 갖고 싶다면 호수를, 수영장을 갖고 싶으면 수영장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없는 부속 시설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집에는 문패가 있고 거기에는 천국 글씨로 주인의 이름과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영광과 자량이 더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성도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벧전 5:4).

가령,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교회에 다니더니 착하게 변했다"고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언행이 선하게 바뀌면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빛으로 비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마 5:16).

이렇게 사명 감당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 2천층에 들어가면 자신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성까지 버려서 온전히 성결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성결을 이루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 속에 억지로 지키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이 나온다.
2. 믿음의 3단계에서는 마음의 () 즉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 ()의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의 일을 버려 나가게 된다.
3. 믿음의 3단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육신’과 ‘육신의 일’

‘육신’이란 ‘진리가 빠져나간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한 것’이다. 즉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교만, 판단, 간음 등 아직 행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 속성들의 총칭이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을 하나하나 분류해 놓은 것이 ‘육신의 일’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 네덜란드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권능」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언어, 「나의 삶 나의 신앙1」 스웨덴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선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70호), 말레이시아어(5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2022년 제 1차 정기 당회가 6월 19일 주일 저녁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맥추감사절(7월 3일)을 맞이하여 학습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학습문답 대상자는 문답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문답서는 신학교 1층 우림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학습문답: 6월 12일(주일) 오후 2시 신학교 3층 예배실
※ 학습식: 6월 19일(주일) 오후 2시 신학교 3층 예배실
-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초청 호남지방회 성령충만기도회가 6월 15일(수) 오후 8시에 광주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 2022년도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 30분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관: 총회 교육부)
- 총회에 납부할 세례인 부담금(1인당 3천원)을 오늘까지 각 교구장(남·여선교회) 및 지도교사(학생 이상)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림북에서는 개역한글 성경 구매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샘플을 비치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샘플 비치 장소: 1층 카페)

- 당회장님 저서들(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전주만민교회(담임 강승표 목사)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 일시: 6월 12일(주일) 오후 3시 30분

※ 강사: 박형렬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1대대 6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6월 12일	대예배	5, 6, 7, 8, 9교구	1, 2, 3, 4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0, 11, 12, 13, 19, 빛과소금선교회
6월 1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5, 6, 7, 8, 9교구
	저녁예배	10, 11, 12, 13, 19, 빛과소금선교회	1, 2, 3, 4교구
6월 26일	대예배	10, 11, 12, 13,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 2, 3, 4교구	5, 6, 7, 8, 9교구
7월 3일	대예배	1, 2, 3, 4교구	10, 11, 12, 13,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5, 6, 7, 8, 9교구	중국대교구

《 지성전 기도회 일정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날 짜	교구 / 지성전	교구장	구분
6월 12일	17교구 구리지성전	차경숙 전도사	3대대
6월 19일	16교구 일산지성전	박금미 전도사	
6월 26일	14교구 이천지성전	서덕분 전도사	2대대
7월 3일	14교구 분당지성전	서덕분 전도사	
7월 10일	21교구 인천지성전	이풍근 목사	3대대
7월 17일	14교구 강동지성전	서덕분 전도사	2대대
7월 24일	20교구 수원지성전	이영인 전도사	3대대
8월 7일	21교구 부평지성전	이풍근 목사	3대대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향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6/12 일

- 00:00 - '십자가의 도 9'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5' 이수진 목사
- 17:00 - '천국 5' 이재록 목사
- 18:30 -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 조수열 목사

6/13 월

- 01:00 - '이루라하였으나 구하리라 하리라 1' 이수진 목사
- 07:05 - '천국 6' 이재록 목사
- 10:50 -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 (생방송)
- 13:00 - '욥기 강해 5' 이수진 목사
- 15:30 - '선 12'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24' 이재록 목사

6/14 화

- 01:00 -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1' 이수진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3' 이재록 목사
- 10:20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1'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10'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3' 이재록 목사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 이수진 목사
- 19:00 - 구약 공과 56

6/15 수

- 00:00 - '십자가의 도 12'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역사'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36'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사랑장 12' 이재록 목사
- 13:00 - '공부잘하는 비결 4'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4' 이재록 목사
- 17:00 - '천국 8'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42' 이재록 목사

6/16 목

- 01:00 - '욥기 강해 16' 이수진 목사
- 07:05 - '천국 9'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5' 이재록 목사
- 10:20 - '죄의 뿌리와 성결 1'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3' 이재록 목사
- 13:00 - '공부잘하는 비결 5'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5' 이재록 목사
- 19:20 - '요한일서 강해 36' 이수진 목사

6/17 금

- 08: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6' 이재록 목사
- 10:20 - '죄의 뿌리와 성결 2'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13' 이재록 목사
- 17:00 - '천국 10' 이재록 목사
- 19:00 - 영적인 존재들 20
- 20:40 - 독일 연합대성회 3

6/18 토

- 07:05 - '천국 11' 이재록 목사
- 10:00 -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이재록 목사
- 12:05 - '사랑장 15'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85'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 (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www.manmin.org
m.manmin.org
www.gcntv.org
m.gcntv.org

- Jun. 12(Sun.)

(Psalm 23: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 Jun. 13(Mon.)

(Psalm 23:3)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 Jun. 14(Tue.)

(Psalm 23: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 Jun. 15(Wed.)

(Psalm 23:5)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have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 Jun. 16(Thu.)

(Psalm 23:6) “Surely goodness and lovingkindness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 Jun. 17(Fri.)

(Psalm 37:1) “Do not fret because of evildoers, Be not envious toward wrongdoers.”

- Jun. 18(Sat.)

(Psalm 37:3)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cultivate faithfulness.”

금주의 성경구절

6월 12일(주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 23:2)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

6월 13일(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 23:3)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6월 14일(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시 23:4)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월 15일(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 23:5)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월 16(목)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 23:6)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월 17일(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시 37:1)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6월 18일(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시 37:3)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골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교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니라/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 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قام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히에게 보내니라/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_ 2_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_ 3_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_ 4_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도/ _ 5_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_ 6_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_ 7_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_ 8_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맑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_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_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_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면서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_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_ 3
하나님은...!



어떤 사람든 자아가 어떻게 상쾌한 다 지킬 수 없나? 말하기를 합니다.
욕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킬 수 없나? 단지 자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모든것에 대해 보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나니
우리가 그의 재물을 주는 것보다 그의 재물을 무시는 것이 아니라 했을지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상급이 있는 일을 위하여도 기쁨으로 살아 주는 것이 비단이기도
마침을 영성 사랑한것 재물을 주는 것이
크고도 믿음의 열매 요새가 기쁨으로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대

6월 1일~6월 30일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